

# 광주시립발레단 매달 명작 갈라콘서트 연다

23~24일 문예회관 첫 무대  
‘해적’ ‘고집장이 딸’ 등 공연  
김용걸 교수 안무가 참여

3월 17일 ‘베니스의 카니발’  
대작 ‘백조의 호수’ 7월로 연기



광주시립발레단은 매달 다양한 클래식 작품을 선보이는 ‘갈라콘서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카르멘’ 공연 장면.

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날 수 있는 ‘갈라 콘서트’는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예선 등을 이유로 전막 공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다양한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터라 발레나 오페라의 경우 다양한 ‘갈라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의 감흥을 풀어준다.

최태지 예술감독이 이끄는 광주시립발레단이 매달 다양한 명작 발레를 만날 수 있는 ‘갈라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갈라 콘서트가 열리는 했지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공연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클래식 명작 발레’ 등을 두루 소개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광주시립발레단이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작품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발레 갈라 콘서트 #1. 클래식 명작 발레’로 이름 부친 첫 공연은 오는 23일(오후 7시30분)과 24일(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시리즈 첫번째인 이번 공연에서는 스타

발레리노에서 안무가로 변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객원 안무가로 참여, 작품을 선보인다.

김 씨는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를 거쳐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광주시립발레단과 함께 선보이는 작품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 3악장’이다. 브루흐의 동명의 곡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원곡이 갖고 있는 빠른 박자의 에너지를 세련된 안무로 풀어냈다. 보그단·김진경, 우건희·김민영이 이를 공연에서 각각 솔리스트로 출연하며 10여명의 단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작품의 ‘2인무’(Pas de Deux)다.

바이런의 서사시를 토대로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한 ‘해적’ 1막 중 ‘상인 2인무’, 현존하는 전막 고전 발레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부잣집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



김용걸 교수

려는 어머니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딸의 해프닝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고집장이 딸’의 2막 ‘2인무’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프랑스인의 자유를 향한 혁명 의지를 담은 작품으로 특히 남성 발레리노의 다이

내미한 회전과 점프가 돋보이는 ‘파리의 불’ 2인무, 파리 상제리제 극장 발레 마스터 빅토르 그소브스키가 안무한 ‘그랑파 클래식’ 등도 선보인다.

김주현·박경애, 김선돈·조현지, 송관석·전진미, 우건희·신승현, 허요완·임예선, 김민석·유운지, 보그단·신승현 등 단원들이 다양하게 짝을 이뤄 공연에 나선다.

3월 17일 열리는 두번째 시리즈에서는 ‘베니스의 카니발’을 군무 형태로 재해석한 작품 등이 무대에 오르며 4월(13~14일), 6월(15~16일)에도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당초 5월 공연 예정이었던 ‘백조의 호수’는 완성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로 공연을 연기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유리 그리고비치와 함께하는 작품으로 기존 광주시립발레단에서 공연했던 ‘백조의 호수’와는 다른 버전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4.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 삼국사기·은진미륵 유명 문화재 국보 늦어진 이유는



삼국사기

### 소장자·소장기관 신청 안해 문화재청 보물 중 일괄 선정

문화재청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보 지정 예고 문화재는 ‘삼국사기’ 2건과 ‘삼국유사’,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삼국유사는 이미 2건이 국보로 지정돼 있으나, 삼국사기와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처음 국보 승격 대상이 됐다.

‘삼국사기’, ‘은진미륵’ 등 일반에게 많이 알려진 문화재가 뒤늦게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전해지는 국내 최고(最古)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김부식(1075~1151)을 비롯한 문신들이 편찬한 역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등이 수록돼 있다.

올해 지정된 두 건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결본으로 고려~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육산서원에 있는 보물 제525호와 개인이 소장한 보물 제723호로, 모두 조선시대 중기에 간행됐다. 보물 지정 시점은 보물 제525호가 1970년, 보물 제723호가 1981년이다.

논산 은진면에 있다는 이유로 불은 별칭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1963년 보물 제218호로 지정된 뒤 55년 만에 국보 후보에 올랐다. 이처럼 유명 문화재들이 수십 년 만에



은진미륵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은 소장자나 소장기관이 지자체를 거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국사기 2건과 은진미륵은 국보 승격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2017년 불교계와 박물관, 학계, 지자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중 국보로 승격할 만한 문화재를 뽑는 작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올해 국보로 승격 예고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은진미륵을 포함해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1호) 등 3건이 후보로 추려졌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

## 감성적 근대와 한국인의 정체성 22~23일 문화전당서 감성연구 학술대회

한국 문화의 새로운 키워드인 ‘감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과 감성인문학회는 22일~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정보원 대강의실)에서 제9회 감성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감성적 근대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감성 영역을 인문학적으로 개척하면서도,

그 동질성과 차별성을 동아시아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의미가 있다.

첫날 22일(오후 1시) 개최식은 조운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신중 감성인문학회장의 환영사, 허민 전남대 부총장의 축사로 막이 오른다. 전남대 정명중 교수의 ‘감성연구 성과와 전망’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근대성과 혁명 그리고 감성’, ‘국민과 안민, 그 경계와 너머’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재일한국인 가수 이정미 콘서트(오후 7시 30분)가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기억을 잇다 경계를 잇다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기타에 사쿠마준페이, 피아노 다케다유미코가 맡는다. 원하는 시민은 무료 관람 가능하다(문의 062-453-0718).

학술대회 둘째 날인 23일(오전 10시)에는 모두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각각의 주제는 ‘한국 감성의 특수와 보편’, ‘한국 감성과 조국적 공감장’, ‘한국인의 경계’다.

세션별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감성적 주제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530-2710. /박성천기자 skypark@

## 광주여성재단 ‘손가락 석고 방향제 만들기’

### 27일 시민예술체험프로그램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재단 8층 여성전사관에서 시민예술체험프로그램 ‘나만의 손가락 석고 방향제 만들기(사진)’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 내 여성전사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이꽃을 하고서’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꽃을 하고서’의 정유승·박화연 작가는 체험참여자와 함께 기획전시를 둘러본 뒤 손가락을 석고로 본뜬 뒤 이를 방향제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

참석은 오는 23일까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전시작품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35.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